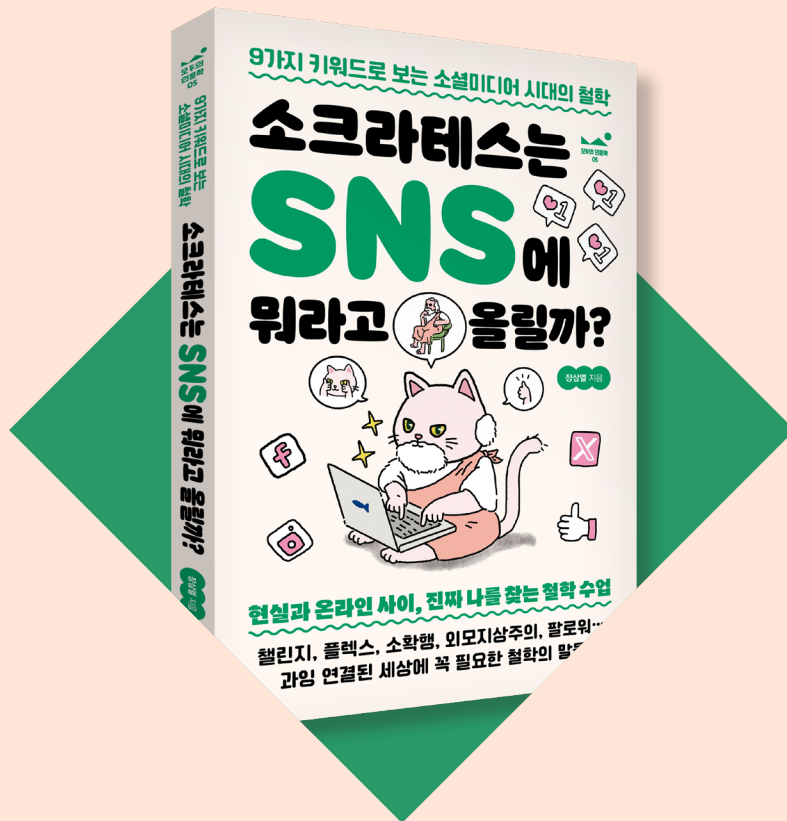


소크라테스는 SNS에 뭐라고 올릴까?



현실과 온라인 사이, 진짜 나를 찾는 철학 수업

챌린지, 플렉스, 소확행, 외모지상주의, 팔로워...
과잉 연결된 세상에 꼭 필요한 철학의 말들

지은이 장삼열

낙관적 사색가. 연세대학교 철학과와 국제사이버신학대학원 목회학과를 졸업했다.

현재 충청남도 서산에 있는 '꿈의학교'에서 철학 교사로 일하며, 중고등 학생에게 철학과 국제 바칼로레아 디플로마(IB DP, International Baccalaureate Diploma Programme)의 지식 이론(TOK, Theory of knowledge)을 가르치고 있다.

그 외에 드림에듀케이션 대표와 월드리더십센터 이사를 역임했다.

나의 SNS 습관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 봅시다.

- ① 오늘 하루, SNS에 접속한 시간은 대략 얼마나 되나요?
- ② 나는 하루에 몇 번이나 무의식적으로 앱을 여나요?
- ③ 잠자기 직전이나 눈을 뜨자마자 SNS를 확인하나요?
- ④ SNS를 확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⑤ SNS에 게시물을 올리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 ⑥ 댓글이나 반응 수가 기대보다 적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
- ⑦ 다른 사람의 게시물을 보고 기분이 안 좋았던 적이 있나요? 있다면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⑧ SNS로 인해 공부를 하거나 잠을 자는 시간이 줄어든 적이 있나요?
- ⑨ 친구나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보다 SNS를 보는 시간이 더 많은가요?
- ⑩ 오프라인 활동(운동, 취미, 만남)보다 SNS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나요?

1. 내가 알고 있는 챌린지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

.....

.....

.....

.....

.....

.....

2. 만일 내가 챌린지를 만든다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도록 권하고 싶습니까?

최초의 챌린지는 2014년에 시작된 아이스 버킷 챌린지입니다. 루게릭병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환자들을 위한 기부 캠페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양동이에 얼음과 물을 가득 담아 자신의 머리 위에 쏟아붓는 챌린지인데, 얼음물을 맞을 때의 통증이 루게릭병 환자가 느끼는 강도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책 15~16쪽)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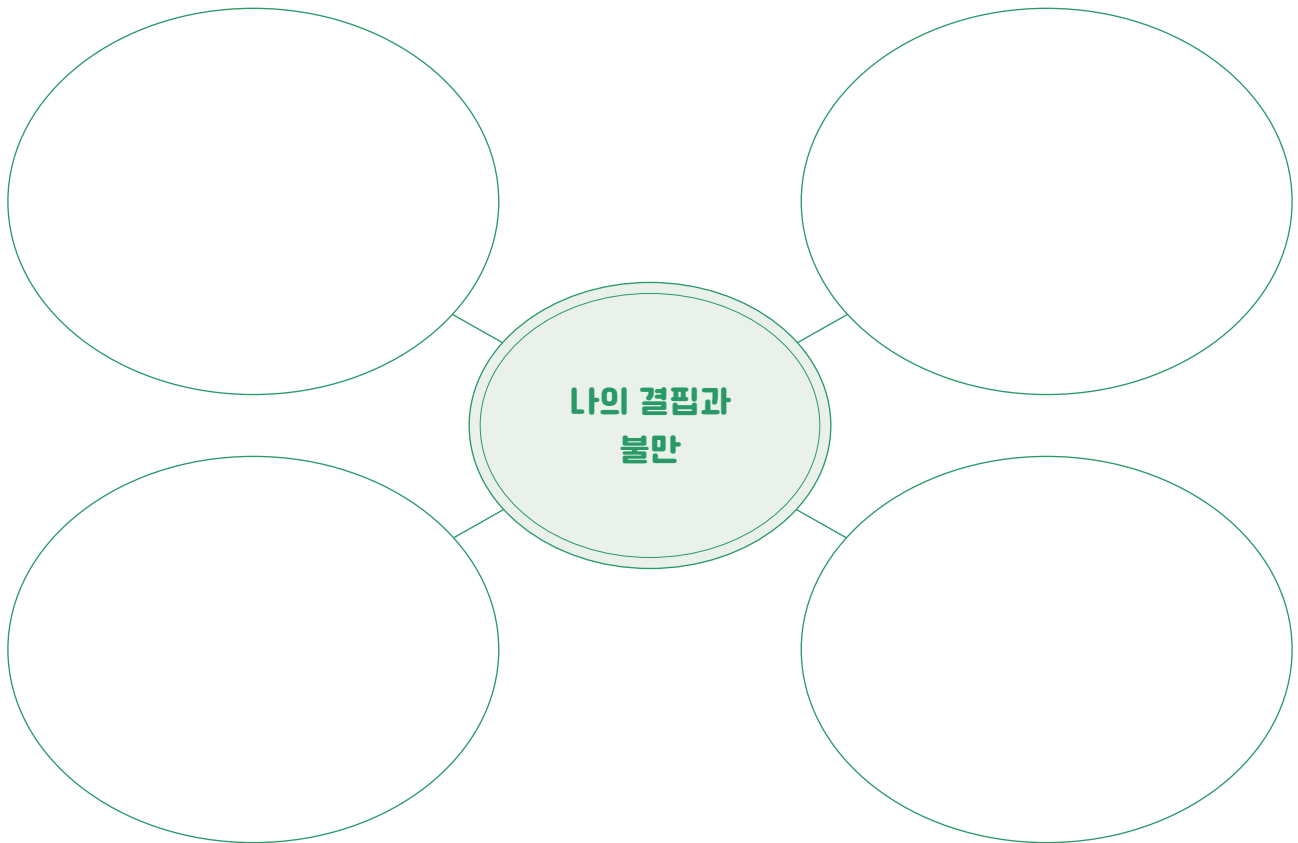
.....

.....

.....

플렉스 1

1.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은 곁핍과 지루함 사이를 오간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무언가 부족하면 불만을 느끼고, 충족되면 곧 지루함을 느낀다는 말입니다. 즉, 완전한 만족 상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현재 내가 가진 곁핍이나 불만을 적어 봅시다.



2. 내가 그동안 살면서 겪었던 어려움을 주제로 노래를 만든다면 어떤 내용을 담을 수 있을까요?

자신의 성공이나 부를 뽐내거나 과시한다는 의미의 단어 ‘플렉스(Flex)’는 미국 힙합에서 유래했습니다. 힙합은 지친 삶의 괴로움, 불평등, 미래에 대한 불안 등을 랩에 담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초창기 래퍼들은 이런 어려움을 극복한 자신의 상황을 자랑스럽게 드러내며 플렉스했습니다. (책 47~49쪽)

3.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는 일이 흔합니다. 그렇게 했던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원인	행위	결과
(예시) 친구의 추천.	〈케이팝 데몬 헌터스〉라는 애니메이션을 보았다.	애니메이션은 평범했지만 OST가 좋아서 종종 듣고 있다.

4.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아 했던 일 중에 후회했던 경우가 있다면 써 보세요.

최근의 플렉스는 최초의 유래와 달리 고난 극복의 서사(사건을 시간순으로 서술함)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자신이 가진 소유물 보여 주는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욕망은 진정 자신이 원하는 것일까요? 프랑스의 정신분석학자 자크 라캉은 “나의 욕망은 나의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책 58~60쪽)

원인	행위	결과
(예시) 광고를 보고 구입한 망원경.	엄마를 졸라서 자연 공부를 하겠다고 샀다.	몇 번 가지고 놀다가 흥미를 잃어 버려서 방치되고 있다. 솔직히 저걸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아직도 모르겠다.

1. 나의 친구들을 설명하는 목록을 작성해 봅시다.

이름	알게 된 계기	친구의 특징	최근에 만나서 한 것
(예시) 이소진	전에 다니던 국어 학원에서 알게 되었다.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웃음이 많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 만점.	도서관에 가서 함께 책을 보고, 나와서 떡볶이를 사 먹었다.

2. 사람과 직접 얼굴을 마주하며 소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를 보여주는 행위 예술가 마리나 아브라모비치의 <예술가는 거기에 있다(The Artist in Present)>라는 작품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책 121~123쪽)

.....

.....

.....

.....

.....

.....

.....

1. 꼭 필요하지 않아도 나의 기호에 의해 자꾸만 사 모으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취미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요. 이런 것들에 대해 적어 봅시다.

상품명	수집 이유
(예시) 파니니 축구 카드	축구와 축구 게임을 좋아하다 보니 선수들의 사진과 프로필이 담긴 카드를 수집하고 있다.

2. 꼭 물질적인 것으로 소비하거나 소유하지 않아도 내 삶을 기쁘게 하는 것들에 대해 써 봅시다.

내 삶의 즐거움
(예시) 아빠와 함께 저녁밥을 먹고 난 후에 자주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돌아다닌다. 노을이 지는 걸 볼 때도 있고, 건강해지는 기분이라 즐겁다